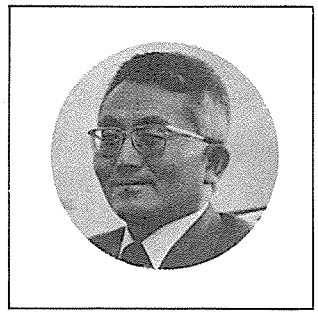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의 맥 ㊳

男女兩性人 事件과 李純之의 희생



朴 星 來
〈韓國외국어대학교수 · 科學史〉

얼마 전 상영된 영화에『舍方知』란 제목의 것이 있었다. 그 영화를 보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사방지"는 실제로 1462년에 있었던 사건의 주인공 이름이다. 1462년이면 조선 왕조의 일곱번째 임금 세조 8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방지〉 사건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 과학사의 중요한 사건을 생각할 수 있다. 아마 영화에서는 그저 흥미 본위로 이야기를 끌어 갔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방지는 남녀 양성을 가졌던 사람이란 점에서 과학사의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건의 가장 큰 희생자는 다름아닌 조선초의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 李純之(?~1465) 였다는 점에서도 우리 과학사의 일화가 아닐 수 없다. 간단히 사방지 사건을 알아 보고, 그것이 이순지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살펴보자.

〈연려실 기술〉이라면 조선 후기의 실학자 李肯翊이 쓴 조선시대의 역사책이다. 조선초부터 숙종때까지의 역사를 주로 야사중심으로 큰 제목에 따라 써놓은 중요한 사료이며 또 읽기에도 재미가 있다. 여기에 있는 사방지에 대한 기록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조 때에 한 종이 있었는데, 생긴 모양이 꼭 여자 같았다. 어릴 때부터 여자옷을 입고 40세가 넘을 때까지 사대부집을 출입하다가 사실이 탄로났다. 대간이 법에 따라 처벌하기를 주장하니 임금이 일이 애매한 점이 있다하여 용서해 주면서 徐居正에게 의견을 물었다. 서거정이 대답했다.

"〈강호기문〉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江淮지역에 한 여자 중이 있었는데, 바느질과 수놓기를 잘 하였답니다. 어느 양민이 딸을 보내어 이를 배우게 하였더니 어느날 그 딸이 임신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힐책을 듣고 딸이 말하기를 여승과 날마다 함께 자고 거처했는데 남녀 사이의 일이 있는 느낌이 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고소했더니 관가에서 그 여승을 잡아다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그 여승에게는 음경과 음문이 모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여승

을 놓아 보내려는 판에 한 늙은 과부가 있어 말하기를 "소금물로 양근 위를 적시고 누런 개가 핥게 하면 양도가 솟아 오른다"는 것 이었습니다. 시험해 보니 과연 그 말대로 였습니다.

이에 관원이 판결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도에는 음과 양이 있고, 사람에게는 여자와 남자가 있다. 지금 이 여승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모양으로 인도를 어지럽혔다면서 목을 베었고, 강희 사람들이 이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 세상의 사리는 이렇게 무궁한 것입니다." 임금이 웃으며 "경은 아예 억지로 일을 설명하지 말라"고 말했다.

舍方知는 兩性을 가졌다는 기록

여기에 덧붙여서 〈연려실 기술〉은 사방지는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다는 〈지봉유설〉의 기록을 인용했다. 〈芝峰類說〉이란 李睟光(1563~1629)의 백과사전 같은 글들을 모은 책으로 한글번역판이 두 권으로 나와 있다. 또 명종때에 대간이 음경과 음문을 함께 가진 사람이 있어 그를 목베어 상서로운 것을 제거하자고 청했더니 임금이 "날짐승과 길짐승도 가벼이 죽일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라. 외딴 곳으로 보내 두는 것이 옳다"하였다. 李彦迪이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임금의 말씀이여, 참으로 천지부모의 도량이로다"하였다. 이 명종 때의 사건도 〈지봉유설〉에서 인용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방지 사건을 〈세조실록〉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세조 8(1462)년 4월 27일 사헌부관리 한 사람이 사방지사건을 들고 나왔다. 餘慶坊에 사는 金龜石의 아내 李씨집의 종 사방지는 여자 복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상한 일이 많아 사헌부가 그를 붙잡아 조사했더니 복장은 여자 처럼 하고 있었지만, 남자의 음경과 음낭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틀림없는 남자이니 조사를 하라는 사헌부관리의 말을 듣고 임금은 승정원에게 상세한 조사를 해 올리라 명령했다. 조사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사방지는 과연 음경과 음낭을 갖고 있는데 또한 여자의 음문도 갖고 있어 양성을 갖고 있으나 남성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것이 승정원의 보고였다.

陰陽의 길을 어지럽혔다는 죄로 처벌

결국 의금부에 수사를 명했고, 음양의 길을 어지럽힌 사방지를 처벌하라는 여론이 일어났다. 사방지가 젊어서 과부가 된 이씨와 오랜동안 사통을 했다거나 또 여승과도 관계가 있다고 했으며, 이씨 덕으로 사치스런 생활을 한다는 비난등이 잇따랐다. 그러나 세조는 이 사건에 상당히 관대하여 심한 처벌을 반대했다. 이씨는 바로 이순지의 딸이었고, 김귀석의 아들은 정인지의 사위였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은 사방지사건의 심한 처벌을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그칠 것 같았던 사방지사건은 이순지가 죽은 뒤 악화되고 말았다. 세조 11년(1465년) 6월에 이순지가 죽은 다음 2년만인 세조 13년 4월 사방지는 충청도 新昌縣의 노비로 쫓겨 내려간 것이다. 그 이유를 〈세조실록〉은 길게 설명해 놓았는데, 요컨대, 이순지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세조는 사방지를 이순지에게 맡겼는데, 이순지는 그를 처벌하지 않고 그저 시골별장에 가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순지의 딸도 온천을 간다는 핑계로 사방지를 따라 시골로 내려 가버렸다. 게다가 이순지가 죽자 그 딸은 다시 사방지를 자기집에 끌어 들였던 것이 사태를 다시 악화시킨 것 이었다.

중신들이 일어나 사방지의 처벌을 주장했다. 신숙주는 사방지는 바로 "西房的"이란 뜻이라고 사람들은 소문을 내고 있다면서 〈강호기문〉에도 같은 선례가 있다고 처벌을 주장했다. "사방지"란 "서방적"과 발음이 비슷한데 바로 그 뜻은 "서방 같은"이란 말이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조는 함께 있던 서거정에게 〈강호기문〉의 기록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서거정은 알고 있다며 하늘의 도는 음양이 있고 사람

에는 남녀가 있는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런 경우는 가차없이 처형하게 되어 있다는 기록을 소개했다.

사방지를 신창현의 종으로 내려 보내라는 결정은 이렇게 내려진 것 이었다. 임금은 "이 사람은 사람의 류가 아니라 是人非人類"라고 하면서도 처형까지는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뒤에 중요한 선례가 된 것이 틀림 없다. 앞의 〈연려실 기술〉에도 나오는 것처럼 명종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선례를 따라 처리되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명종 때의 사건은 〈명종실록〉에는 비교적 간단히 적혀 있을 뿐이다. 명종 3(1548)년 11월 함경감사가 보고를 올렸는데, 길주 땅에 林性仇란 사람이 있는데, 남녀 양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심히 해괴하니 어쩌면 좋으냐는 것 이었다. 임금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벌할지 확실한 조항이 없으니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중신들에게 물었다. 중신들은 바로 사방지사건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같은 처리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명종은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 어려운 먼 지방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林性仇도 男女 兩性人이었다고…

아직 우리 역사에 얼마나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연구된 것이 없다.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남녀의 성변화에 대해 제법 기록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사방지사건보다 6년 앞선 1456년 시칠리아의 에밀리아라는 여자는 결혼한지 12년만에 남자가 되어 이름을 에밀리우스로 바꾸고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는 일도 있다. 근대과학이 발달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남긴 영국의 왕립학회는 1668년 1월 월례모임에서 양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토론을 한 일도 있다. 당시 학회의 간사를 맡고 있던 올덴버그가 보일에게 쓴 1667년 12월 24일자 편지에 의하면 "다음 회의는 오는 1월 2일에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는 현재 런던에 살고 있는 어어쁜 양성자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고 이미 자신이 알렌의사와 함께 그를 만나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 그 회의에는 뉴튼도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사방지나 서양의 에밀리아는 모두 가끔씩 발견되는 이상적인 형상일 뿐이다. 당시에는 아직 이런 의학적 문제에 대해 지식이 없었지만, 남녀 양성을 갖춘 사람(영어로는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소생이 그랬다는 신화 때문에 hermaphrodite라 부른다)은 있을 수 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겉으로 들어나는 성기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남녀 양 성기를 가진 사람이 가끔 나타나는 바람에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좀 더 의학이 발달하자 사람 가운데에는 성기는 남자이면서 性腺는 여자여서 난소를 갖추고 있다거나, 반대로 성기는 여성인데 고환을 갖추고 있거나, 아예 난소와 고환을 함께 가진 경우도 밝혀졌다.

20세기에 들어 와서는 여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는 XX이고 남성은 XY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밝혀졌지만, 바로 그유전적 요건이 혼란스런 경우도 발견되어 있다.

그 가운데 고환성 여성화의 경우 잘 발달한 여성의 육체에 질과 외음부를 갖고 있지만, 대개 자궁과 난관은 없고, 염색체는 남성형인 XY형을 갖고 게다가 완전 분화된 고환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는 이상하게도 미인인 수가 많고 여성으로 교육되어 결혼하여 별 문제가 없이 사는 수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임신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세조 때의 사방지는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사방지는 미인이고 분화된 고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같으면 수술과 호르몬 치료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사람이 역사에 남는 이상한 경우가 되었던 셈이다. 특히 이런 양성의 소유자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생각을 당시 사람들은 아예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